

## 들어가며

- 앞<sup>1)</sup>의 문화와 그 복잡계가 형성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는 것
- 아래로부터의 지성사: 다양한 다수의 사람이 소유한 지식과 그 앞-문화의 변동에 관한 문제제기
- 대중지성. 집단지성. 다중 개념은 아래로부터의 앞의 문화와 연관: 지식의 근대사와 그 주체의 역사를 검토
- 1부에서는 대중지성의 의의를 다루고 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서 앞의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전체적인 앞의 문화에서 차지한 위치를 검토
- 이 책에서 사용된 대중 개념은 다중개념과 유사. 그러나 무지한 존재로서의 대중개념과는 다름

## 1부. 앞의 문화론을 위하여

-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인터넷기반경제의 무형적 인프라라는 의미를 갖게 됨
- 90년대 이후로 지식개념이 확장되면서 더욱 모호해지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정보의 유통과 조직방식은 사회의 노동과 소통방식을 변화시킴
-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지식을 더욱 강하게 도구화하고 있고, 지식의 유용성과 위계를 성공적으로 분배 ex. 세계지식포럼
  - \* 지식의 위계를 정하는 주체: 지식-돈 패러다임
  - \* 앞의 위계와 차등은 상대적이고 변화함
- IT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공유의 확대, But 지식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확대
- 앞은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앞의 평등은 불가능: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조건
- 근대이후 지식발전의 방향: 분화와 전문화/학문내외부의 통합
- 지식의 분화.전문화는 전문가적 무지와 소통의 부재를 초래 ex. 황우석사태 & 소갈의 장난
- 앞의 통합: 지식 간 통합과 소통, 경계를 넘는 지식의 교호일반으로서 통섭의 필요성
  - \* 진정한 의미의 통섭은 지식의 위상과 기능,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
- 지식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지식과 권력, 지식과 자본의 결합을 결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적 지성의 능력과 연대가 필요: 통섭은 대중지성과 연결

---

1) 앞이란 의례와 매체, 그리고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에 근거한 사회.문화적 현상. 앞은 이데올로기, 표상과 심성, 담론의 구조와 권력문제, 민족.세대.계급의 문제와 연관

- 앎의 분화는 근대적 학교제도와 미디어의 형성에 의해 촉진되고 계급.계층의 분화에 의해 완성되고 확대재생산
- 대중은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주체: 정체성으로 기능하지 않음 ex. 개별자는 노동자. 구민과 달리 대중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음
-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명명: 지식인과 대중을 구분
  
- 대중지성은 현대의 공통공간에 등장하여 주체성을 부여받는 다중적 주체가 앎을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소지하게 되는 집단적 현상과 그에 의해 성립되는 앎을 지칭
- 대중지성의 본성은 앎의 소통과 수평적 연대, 집단적 참여이며, 자신 속에 내장한 상호주관성과 소통성으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에 연결 -> 과도한 주관성과 전문지식의 과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집합적 사유와 토론
  
- 다중개념에 대한 문제제기
  - \*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중개념 - 새로운 기획이나 배타적으로 선택될 수 없는 개념
  - \*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네트워크적이며 분산적인 투쟁을 옹호하는 경향
  - >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중적 연대를 이뤄낼 것인가의 문제
  - > 대중의 후기근대적 상황과 그 존재성을 강조할 때, 대중에 덧칠된 부정적인 관념을 피해 복수의 집합적 존재에 대해 말해야 할 때 다중을 선택 가능
  
- 마니아: 취향과 새로운 대중문화의 주체이자 지식의 주체
  - \* 마니아의 앎은 집합적이며 공유되는 것
  - \* 현실세계의 위계와는 무관한 지식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대중지성의 본연에 가장 가까움

## 2부. 아래로부터의 해방과 근대적 앎의 성립: 대중의 등장과 대중지성의 형성

- 대부분의 지식론이나 지성사는 특권계급과 문자를 소유하고 운용하는 지식계급의 활동과 정신사: 권력자-남성-지식인의 지성사
- 앎의 역사를 아래로부터의 해방과 근대적 앎의 성립과정의 관계문제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제 2부의 목적: 앎의 주체로서 대중의 등장과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정
- 근대적 대중지성은 농경사회와 봉건적 관계를 대체한 새로운 생산관계와 생활양식이 출현하고, 새로운 정치적.문화적 의식의 주체가 형성됨으로써 탄생: 대중지성의 생성은 자기해방을 향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투쟁과 대중의 등장에 결부된 과정
  
- 이 책에서 다루어진 시기는 1890-1910년대/1919-1920년대까지: 3.1운동은 터닝포인트
- 이 시기의 문화사를 정치문화적 변화/앎의 이념과 지식내용의 실제적 변화/지식문화와 제도의 변화의 세 가지 차원의 변화와 그 상호작용으로 이해

정치문화적 변동	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동	정치사적 혁명과 반동	근대국민국가성립의 노력과 좌절	민족·노동계급·여성 등 근대주체의 구성	민중봉기와 계급의 형성
앎의 이념 및 지식의 내용변화	유교적 세계관의 붕괴·윤리적 체계의 변화	서구분과 학문의 유입	동학·기독교 사회주의 등의 작용	분과학문의 토착화·교양의 변화	정보·취미·교양 등 지식의 발생
지식문화와 제도의 변화	근대적 학교·학회·연구소의 탄생	국가지식 생산과 공교육 제도의 확충	부르주아 공론장의 제도화 및 미디어 소비의 일상	검열제도	개인의 정보 및 지식 취득 방법의 변화

- 1898년의 아고라 만민공동회: 독립신문이 하나의 공론장으로 변화
- 독립협회의 한계: 충군과 애국 - 민을 권력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음
- 낡은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공존: 수신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봉건사회의 잔재와 규범 교육 <-> 서구와 일본에서 들어 온 새로운 지식
- 앎의 주체로서 민중: 동학, 천주교, 개신교 등 신흥종교, 인쇄매체 설립과 사립학교 설립
- 갑오경장은 과거제를 폐지해 앎-권력제도와 지배계급의 충원방식을 변화
- 대한제국의 근대교육 확산 노력은 소극적이었던데 반해 1900년에서 1910년 사이 민간학교의 성장은 폭발적: 민간학교는 신교육 도입 뿐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가 변해가는 노드의 역할을 했고, 3.1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맹아를 구축
- 근대적 국가과학주의의 확산 (1900년대-): 과학자 공학자의 등장
- 3.1 운동은 앎의 해방과정을 급진화한 아래로부터의 운동: 3.1운동은 근대적 교육에 접촉한 새로운 앎의 주체들이 민족-대중으로 형성되면서 폭발한 운동
  - \* 천도교와 기독교 같은 탈봉건의 주체가 교회와 학교 같은 새로운 앎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동 조직
  - \* 사회주의의 부상
  - \* 근대적 학교교육이 확고한 제도로서 인식됨: 문맹률 하락
  - \* 출판산업의 성장과 대중문화 발전
-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표상: 국민, 노동자, 농민, 여성, 청년, 어린이 등의 근대적 개인 등장
-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력 확대
  - \* 민족주의는 평등의 상상력을 함축한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용
  - \* 사회주의는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기능: 근대지식이면서 동시에 근대 지식의 체계와 속성을 파열시키는 균열자로 작용
- 1920년대 대중지성의 성장은 글쓰기의 확산, 연설, 토론, 웅변 등을 통해 이루어짐
  - \* 근대적 문자문화의 확산: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감각의 총체적 근대화가 이루어짐

\* 독서회의 확산: 함께 읽기, 관계적 읽기의 양식

- 일제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는 지식국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: 조선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조선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는 탄압
- 따라서 근대 초기 대중지성은 국가없이 혹은 국가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형태를 갖추
- 지식의 분화와 근대적 지식인의 등장이 이루어진 시기: 근대적 고등교육의 확산과 새로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중간층과 고학력자를 양산
- 지식인이 형성되는 와중에 민중은 앎의 도구를 소유함으로써 교양을 가진 집단적 지성이 되어가고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어감.